

본 자료는 2019년 4월 2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1일(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 4. 19(금)	담당부서	동향·통계분석본부 동향분석실 외
담당자	민성환 연구위원 (044-287-3127), 홍성욱 연구위원 (044-287-3192) 중국한국상회 김종일 대리 (001-86-10-8453-9755 내선 219)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경기실태조사 결과

- 2019년 1분기 현황과 2분기 전망 -

- 2019.1분기 전체 현황 : 시황(85)과 매출(80) 100 하회 지속, 3분기 연속 하락
- 특히 화학(57)과 섬유 의류(67)에서 부진 현저, 유통업(77)도 추가 하락세
- 2019.2분기 전체 전망 : 시황(106)과 매출(120)이 100 동반 상회하여 개선 기대
- 섬유 의류(57) 제외한 대다수 업종 100 상회, 유통업(123)도 100 크게 상회
- 경영애로사항 :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지 수요 및 수출 부진 등의 어려움이 감소
- 미·중 마찰 영향 : 전체 기업의 약 46%가 부정적 영향을 체감(전분기 44%)

○ 산업연구원(KIET, 원장 장지상)과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및 중국한국상회가 공동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3월 1일 ~ 3월 29일 동안 정기 설문 조사(제17차)를 수행하여, 총 7개 업종의 214개 기업들이 응답

○ 경영실적, 판매, 비용, 경영환경, 애로요인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각 항목별 조사 결과들을 통상적인 경기실사지수(BSI) 작성 방식에 따라서 0 ~ 200 사이의 값으로 산출

- 지수가 100을 초과 시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많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

□ 2019.1분기 현황 BSI, 100 하회 지속, 3분기 연속 하락

○ 전체 기업의 1분기 현황 BSI는 시황(85)과 매출(80)이 전분기(각각 87과 93)보다 더 떨어지면서 3분기 연속 하락세

1) 응답 업체의 업종별 구성비 분포와 구체적인 계산 식은 첨부 자료를 참고

- 현지판매(79)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 설비투자(102)는 100을 소폭 상회, 영업환경(73)은 보합, 제도정책(81)은 소폭 개선
-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현지수요 부진(20.6%)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면서도 수출 부진(8.9%)과 함께 응답 비중은 감소, 경쟁 심화(18.2%), 인력/인건비 문제(14.0%) 등은 증가

□ 2019.2분기 전망 BSI, 시황과 매출 100 동반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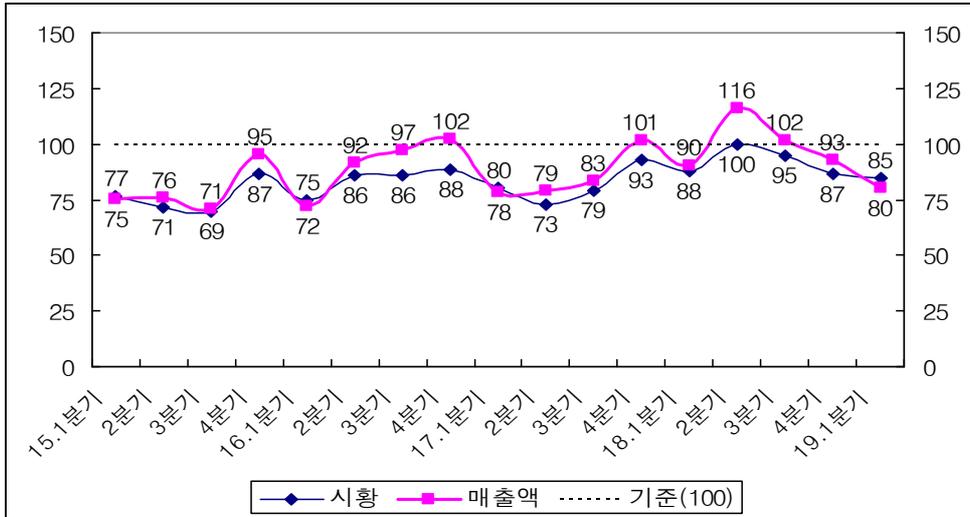
○ 전체 기업의 2분기 전망 BSI는 시황(106)과 매출(120)이 100을 다시 웃돌면서 전분기(83과 87)보다 큰 폭 상승

- 현지판매(116)가 큰 폭으로 상승, 설비투자(108)도 4분기 만에 상승, 제도정책(87)은 아직 100을 밑돌지만,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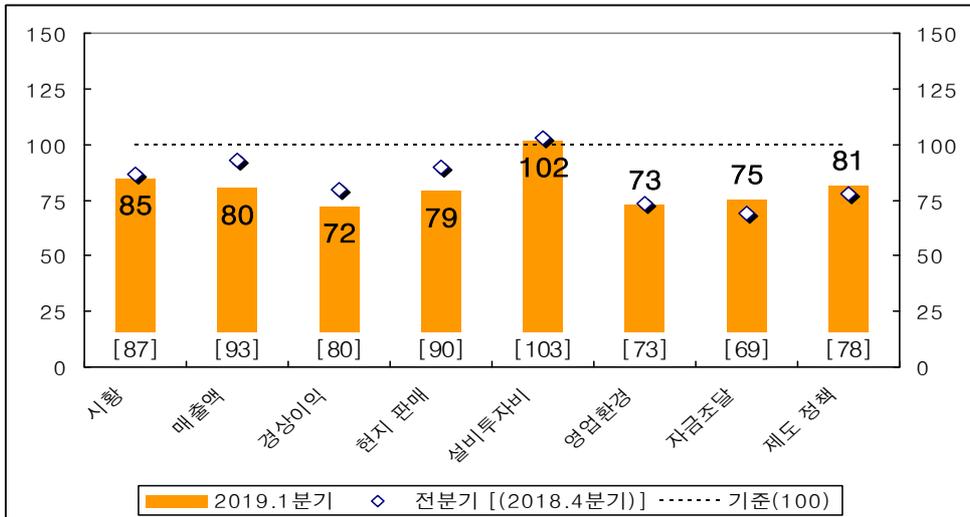
<표 1> 전체 기업의 부문별 현황 및 전망 BSI, 경영애로사항

	현황 BSI					전망 BSI					
	지수 기준			전기비 기준		지수 기준			전기비 기준		
	2018년 3분기	2018년 4분기	2019년 1분기	2018년 4분기	2019년 1분기	2018년 4분기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시 황	95	87	85	(-8)	(-2)	103	83	106	(-20)	(+23)	
경영 실적	매출액	102	93	80	(-9)	(-13)	117	87	120	(-30)	(+33)
	경상이익	86	80	72	(-6)	(-8)	96	75	106	(-21)	(+31)
판매	현지판매	98	90	79	(-8)	(-11)	119	89	116	(-30)	(+27)
	한국재판매	95	91	84	(-4)	(-7)	98	95	95	(-3)	(0)
	제3국판매	101	101	95	(0)	(-6)	99	96	107	(-3)	(+11)
비용	인건비	149	136	141	(-13)	(+5)	148	145	150	(-3)	(+5)
	원자재구입	144	128	121	(-16)	(-7)	146	126	135	(-20)	(+9)
	설비투자	109	103	102	(-6)	(-1)	107	104	108	(-3)	(+4)
경영 여건	영업환경	84	73	73	(-11)	(0)	89	77	95	(-12)	(+18)
	자금조달	85	69	75	(-16)	(+6)	84	75	86	(-9)	(+11)
	제도정책	77	78	81	(+1)	(+3)	78	74	87	(-4)	(+13)
경영애로사항 (응답 비중)	■ 현지 수요 부진(18.4분기 21.5% → 19.1분기 20.6%) ■ 수출 부진(10.3% → 8.9%) ■ 인력난/인건비 상승(13.1% → 14.0%) ■ 경쟁 심화(16.8% →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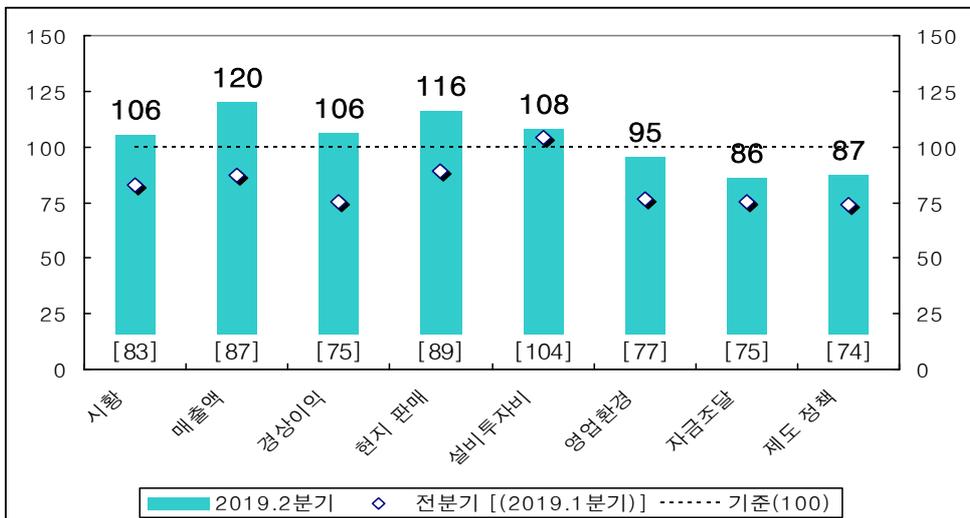
<그림 1> 전체 기업의 시황 및 매출 현황 BSI 추이



<그림 2> 전체 기업의 주요 항목별 현황 BSI



<그림 3> 전체 기업의 주요 항목별 전망 BSI



□ 2019.1분기 업종별·기업규모별 매출 현황 : 제조업 낙폭 확대, 특히 화학과 섬유 의류에서 부진 현저, 유통업도 하락 지속

○ 업종별 매출 현황 BSI는 제조업(81)에서 전분기 대비 하락폭이 좀 더 확대되고, 유통업(77)도 전분기에 이어 추가 하락

- 특히 화학(57)과 섬유 의류(67)에서 100을 크게 밑돌고, 자동차도 3분기 연속 두 자릿수 하락, 전기전자(103)와 금속기계(100) 등은 상승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84)보다 중소기업(79)에서 조금 더 부진

□ 2018.2분기 업종별·기업규모별 매출 전망 : 제조업 2분기 만에 100 상회, 섬유 의류 제외한 대다수 업종 100 크게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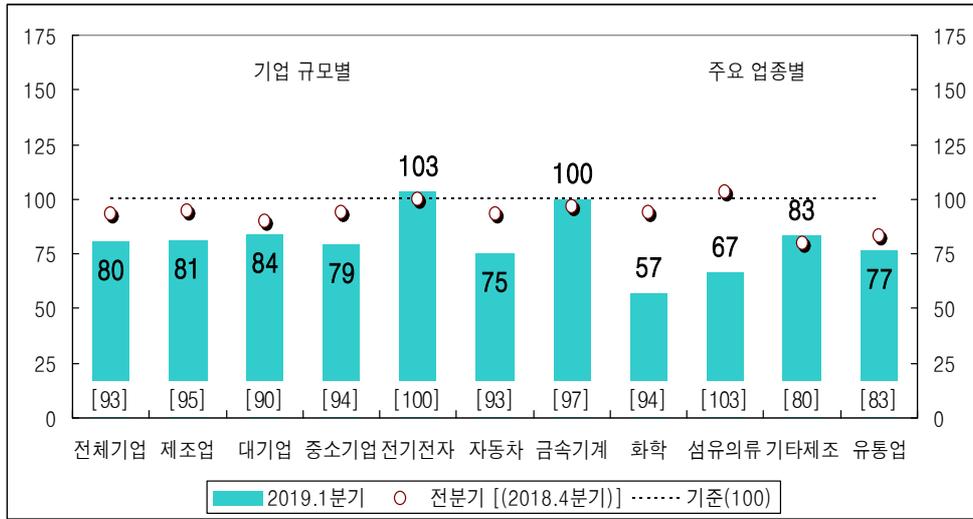
○ 매출 전망 BSI는 제조업(120)에서 100을 다시 웃도는 가운데 전기전자(148)와 금속기계(148)에서 낙관적 기대감이 뚜렷하고, 자동차(119), 화학(123), 유통업(123)도 전분기와 달리 100을 다시 상회

○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123)이 대기업(109)보다 약간 더 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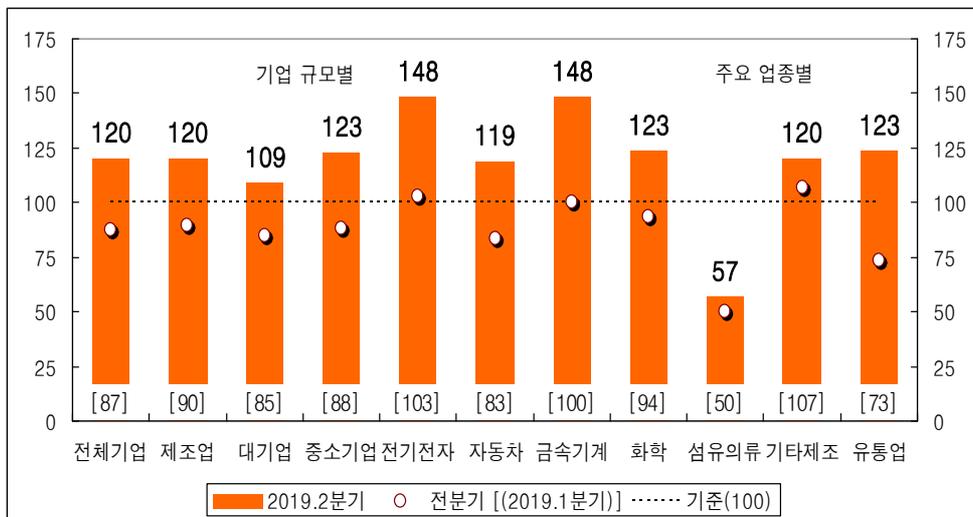
<표 2> 주요 업종별 및 기업규모별 매출 현황과 전망 BSI

		현황 BSI					전망 BSI				
		지수 기준			전기비 기준		지수 기준			전기비 기준	
		2018년 3분기	2018년 4분기	2019년 1분기	2018년 4분기	2019년 1분기	2018년 4분기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전체 기업		102	93	80	(-9)	(-13)	117	87	120	(-30)	(+33)
업 종 별	제조업	102	95	81	(-7)	(-14)	116	90	120	(-26)	(+30)
	전기전자	103	100	103	(-3)	(+3)	112	103	148	(-9)	(+45)
	자동차	113	93	75	(-20)	(-18)	140	83	119	(-57)	(+36)
	금속기계	112	97	100	(-15)	(+3)	112	100	148	(-12)	(+48)
	화학	97	94	57	(-3)	(-37)	133	94	123	(-39)	(+29)
	섬유 의류	97	103	67	(+6)	(-36)	103	50	57	(-53)	(+7)
	기타제조	83	80	83	(-3)	(+3)	93	107	120	(+14)	(+13)
유통업		107	83	77	(-24)	(-6)	127	73	123	(-54)	(+50)
기업 규모별	대기업	113	90	84	(-23)	(-6)	113	85	109	(-28)	(+24)
	중소기업	99	94	79	(-5)	(-15)	118	88	123	(-30)	(+35)

<그림 4> 주요 업종별 및 기업규모별 매출 현황 BSI



<그림 5> 주요 업종별 및 기업규모별 매출 전망 BSI



□ 경영애로사항 : 제조업에서 수요 부진의 어려움 응답 감소, 특히 전기전자와 금속기계에서 현저히 감소, 반면에 경쟁 심화와 현지정부 규제 응답 증가, 유통업에서는 수요 부진의 어려움 여전

○ 제조업 전체로는 현지수요 부진과 수출 부진 등 대내외 수요 부진을 응답한 비중이 줄어든 반면에(31.5% → 26.8%), 경쟁 심화와 현지정부 규제 등의 응답이 약간 더 증가(각각 16.8% → 19.1%, 12.5% → 14.2%), 유통업에서는 수요 부진의 어려움이 여전(33.4% → 46.6%)

- 제조업 내에서는 특히 전기전자와 금속기계 등에서 현지수요 부진과 수출 부진을 응답한 비중이 전분기보다 현저히 줄어든 반면에, 자동차 업종에서는 현지수요 부진의 어려움이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응답 결과들은 전분기와 대체로 동일

〈표 3〉 기업규모별 및 업종별 경영애로사항(2019.1분기)

단위 : %, 응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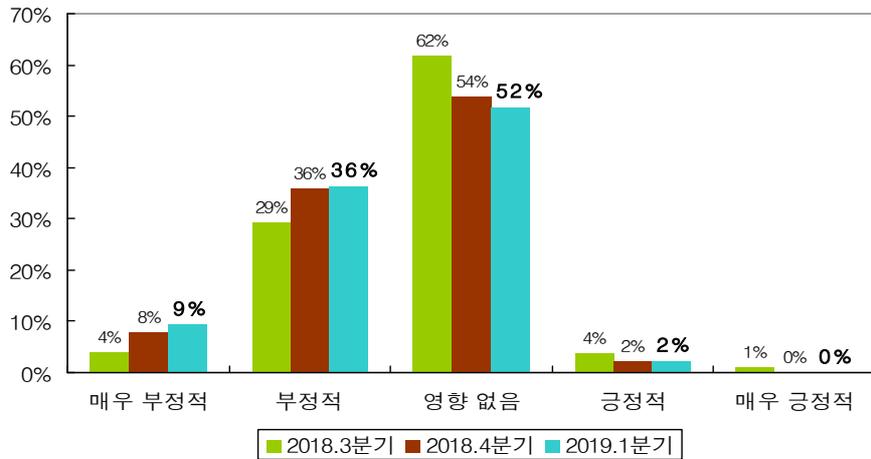
		현지 수요 부진	수출 부진	인력난 /인건비 상승	자금 애로	경쟁 심화	원자재 조달난 /가격 상승	환율 변동	현지 정부 규제	인과 미흡	경쟁력 약화	기타
전체 기업		20.6	8.9	14.0	5.6	18.2	5.1	1.9	13.6	0.5	8.4	1.9
업 종 별	제조업	20.2	6.6	14.8	6.0	19.1	4.9	2.2	14.2	0.5	8.2	2.2
	전기전자	6.5	9.7	32.3	3.2	22.6	9.7	-	6.5	-	9.7	-
	자동차	50.0	-	12.5	3.1	18.8	-	-	6.3	-	6.3	3.1
	금속기계	16.1	3.2	9.7	6.5	12.9	3.2	9.7	22.6	3.2	12.9	-
	화학	20.0	-	10.0	3.3	20.0	10.0	3.3	26.7	-	3.3	-
	섬유의류	13.3	6.7	23.3	10.0	26.7	6.7	-	3.3	-	6.7	3.3
	기타제조	13.3	20.0	-	10.0	13.3	3.3	-	20.0	-	10.0	6.7
	유통업	23.3	23.3	10.0	3.3	13.3	3.3	-	10.0	-	10.0	-
기업 규모별	대기업	22.7	2.3	9.1	4.5	34.1	2.3	-	11.4	-	11.4	2.3
	중소기업	20.0	10.6	15.3	5.9	14.1	5.9	2.4	14.1	0.6	7.6	1.8

주 : 회색 음영은 각 업종별로 가장 많이 응답한 비중 또는 최대 수치를 의미.

□ 미-중 통상마찰의 영향 : 전체 기업의 약 46% 부정적 영향 응답

- 미-중 통상마찰의 영향에 관한 설문에서는 전체 기업의 약 45.8%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분기(43.9%)보다 부정적 응답이 약간 더 증가한 모습이나, 추가적인 확대는 다소 제한적인 양상, 아직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하락(54% →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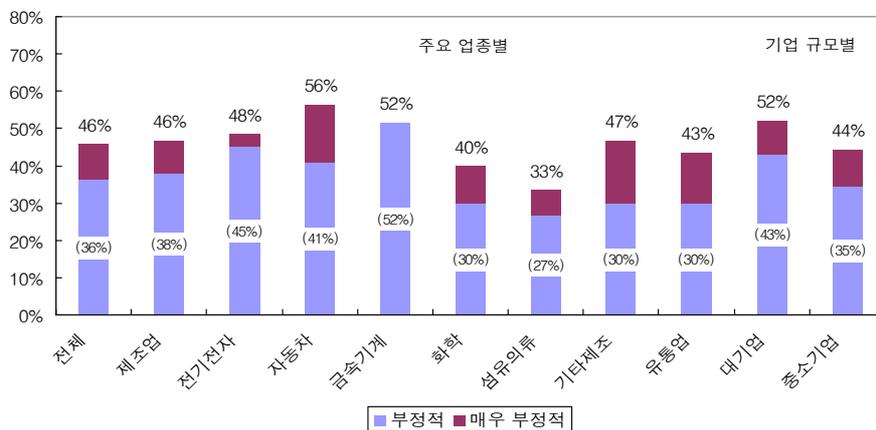
〈그림 6〉 미-중 통상마찰 영향에 대한 설문 결과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자동차와 금속기계 등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더 받고 있으며, 유통업에서도 부정적 영향 응답이 증가,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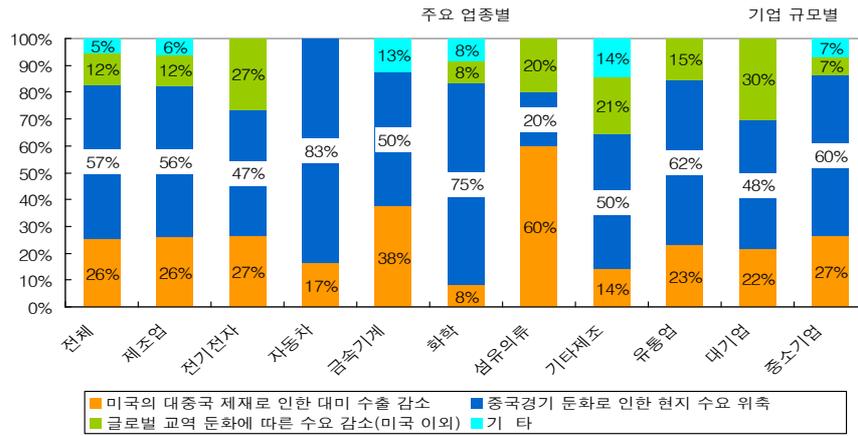
- 부정적 영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중국경기 둔화로 인한 현지수요 위축(57%)을 가장 많이 응답,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18%)도 전분기(14%)보다 증가
- 현지수요 위축의 영향은 자동차(84%)와 화학(75%) 등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받았고, 미국의 제재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 영향은 섬유 의류(60%)와 금속기계(38%) 등에서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 글로벌 교역 둔화의 영향은 전기전자(27%)에서 많이 받은 것으로 응답

<그림 7> 미-중 통상마찰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응답 결과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부정적' 응답만의 비중이고, 막대 위의 수치는 '부정적' 응답과 '매우 부정적' 응답 비중을 모두 합한 수치.

<그림 8> 미-중 통상마찰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부 내용



첨부 :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경기실태조사 결과 (2019. 1분기 현황과 2분기 전망)”